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7.(목) 11:00
(지면) 2026. 9. 17.(목) 석간

전북 농특산품 최대 40%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가위 장터 운영

- 전북지방우정청·완주군과 손잡고 두 차례에 걸쳐 본관 로비에서 현장 장터 개최
- 지역 농가 및 소상공인의 농산물 등 판로 지원 확대로 소득 증대 기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직무대리 박대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추석에 맞아 9월 17일(목)부터 18일(금), 9월 22일(화)부터 23일(수) 각각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가위 장터’를 운영한다.

한가위 장터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자치인재원이 지역 상생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행사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전국의 지방공무원에게 전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는 자리이다.

>> 전북지방우정청·완주군과 협업, 우수 특산품 최대 40% 할인 및 전국 무료 배송

이번 장터에서는 자치인재원이 전북지방우정청과 처음으로 협업해 우체국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장수군의 사과, 진안군의 홍삼 제품 등 35여 종의 농·특산품을 9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현장에서 주문하면 우체국 소포로 전국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이어, 9월 22일(화)부터 9월 23일(수)에는 전북 완주군의 ‘완주물’ 입점 업체가 생산·제조하는 완주 복숭아, 포도, 꽃 식초 등 지역 특산물과 가공 식품 30여 종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 전국 지방공무원 대상 전북 특산품 홍보, 매출 1,500만 원 매출 기록하며 판로 확대

2015년 추석에 처음 시작한 명절 장터는 매회 1,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 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완주군의 요청으로 수시로 ‘금요장터’를 운영해 지금까지 완주 딸기, 익산 수박, 정읍 토마토, 고창 장어 등을 알리고 판매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 7,098만 원(15회 운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박대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장터가 전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길 (063-907-5011)
		담당자	사무관	이성수 (063-907-5012)

